

사찰 재가종무원 처우 대부분 열악

사찰의 주인은 누구일까. 현실적으로 사찰은 스님들의 수행처이자 생활공간이고 부처님을 향한 예경의 공간이다. 따라서 사찰의 실제적 주인이자 수호자는 스님이다. 그렇다면 이것만으로 사찰이 제 구실을 다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외호자도 있어야 하고, 시대에 따른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재가 종무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분명 사찰 운영의 한 주체다.

절 살림과 신도관리의 핵심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종무원 없이 사찰 운영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종무원의 처우는 사찰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다. 월급제, 불안한 신분보장, 국민연금은 물론이거니와 고용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에서도 소외돼 있다.

직업인으로서 사찰 재가종무원의 처우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 짚어본다.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본다

▲ '근무여건은 어떤가'

맞벌이는 기본. 심심은 필수. 재가종무원의 직업 수칙이다. 이 같은 자조적 이야기의 뿌리는 급여.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심각하다.

경남 지역의 한 사찰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오 씨(39). 한달 급여가 120만원을 조금 넘는다. 전직 교사인 오씨의 급여는 중소기업 고졸 초임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에 둘째 아이까지 본 오 씨는 늘어난 생활비 감당을 못해 이 번달부터 집 근처 가게에서 저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아내 역시 상가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다.

오 씨와 같은 사례는 조계종 본사급 재가종무원들도 그대로 적용된다. 직급에 따라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140만원, 상여금은 0~400% 정도다. 게다가 불규칙적인 근무 시간, 들쭉날쭉한 급여 체계,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재가종무원들의 근무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모든 종무원들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경기지역의 교구 본사 사무장 임 씨(45)는 "현재 받고 있는 급여는 중앙종무기관 종무원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 사찰 종무원 생활을 못 한다"고 말했다. 사찰의 규모나 종무기관의 성격에 따라 급여 수준이나 근무 조건이 천차만별이라는 얘기다. 해법이 단순할 수 없는 건 물론이다.

▲ '노동자인가 신도인가?'

재가 종무원의 직업적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경남 지역 한 교구본사의 사무장 박 씨(59)는 오전에 주지 스님에게 편지를 들었다. 50여 명 종무원들의 급여 인상을 요구했다가, '부처님 일 하는데 돈이 뭐가 중요하느냐'는 말만 들었다. 주지 스님과 종무원간의 실랑이. 비단 이곳에서만 일어

나는 현상이 아니다. 대다수의 사찰에서도 연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종무원의 직업 정체성이 노동자와 신도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노동자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로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종무원의 신분보장 문제는 더 심각하다. 강원도 지역 S사찰의 종무원인 김 모씨(36)는 "주지 스님이 바뀔 때마다 사무장이



◇지난해 7월 김포 중앙승가대학에서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열린 '제1회 종무행정 간담회'. 바람직한 재가 종무원 교육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임하는 대불련 출신 김 모씨(27)는 "종무원의 복지처우도 문제지만 고용보장이 안 되는 불교계 현실이 안타깝다"며 "불교계에 서 일을 한다는 건 생각조차 않는다"고 말했다.

▲대안은 없나?

직업인으로 재가 종무원 제도가 자리 잡고 있는 사찰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서울 조계사, 대구 동화사, 해남 대흥사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해 영남지역 교구본사 가운데 처음으로 4대 보험 가입을 골라냈다. 특히 종무원들의 퇴직금 적립을 위해 총급여액의 10%를 적립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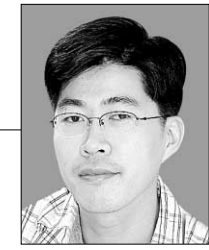
재가종무원의 기획을 사찰에서 받아들이 호평받고 있는 모델도 있다. 해남 대흥사는 일찌감치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사찰의 역할을 준비해왔다. '새벽 숲길' 등 테마 중심의 수련프로그램은 재가 종무원이 기획했다. 전문적인 종무행정력을 인정받아 사찰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종무원 처우의 열악이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사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찰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찰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급여체계의 합리적 조정이 다. 본사나 중앙종무기관에서 사찰 규모별로 표준화된 급여 체계를 제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물론 이를 개별 사찰에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 만족도가 신도 관리나 포교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개별 사찰에서 알아서 할 일만은 아니다. 신분보장, 합리적인 급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무원 복무규정의 현실적 보완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또 대다수 사찰에서 가입하지 않고 있는 4대 보험가입도 추진돼야 한다.

충북 지역 한 사찰의 최 모 사무장(43)은 "그동안 종무원들은 사부대중의 참여에 의한 사찰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노동자로서 재가 종무원을 인정하는 스님들의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근무조건이나 위상 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정진우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실장

한국을 떠나는 두 네팔 친구에게

'고국서 또다른 어려움' 생각해 선뜻 귀국축하 인사말도 못해

인드라, 그리고 빔. 당신들을 만난 지도 벌써 8년째에 접어드는군요. 비록 저보다 나이는 몇 살 많지만, 그래도 허물없는 친구로 서로를 바라보며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네요.

네팔에서 한국에 와서 힘든 노동을 하며 지낸 시간도 벌써 12년을 맞이하고 있으니, 인드라와 빔의 청춘은 바로 한국 생활이 전부겠네요. 20대 초반의 유희기가 이제는 어느덧 30대 중반의 여유로움으로 바뀌었으니까요.

1995년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상담을 할 때, 너무나 서툰 저를 두 사람은 참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었지요. 네팔 불자모임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임과 행사를 같이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한국에 와서 처음 배운 단어가 육이었다는 얘기를,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 한국 말을 못해 물건 사기가 겁나 한 달간 빵만 먹었다는 얘기를 이제는 웃으면서 하지만,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무척이나 당혹스러웠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번도 고국에 가보지 못했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지요. 빔은 네팔의 부인이 어여쁜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기만 했을 뿐 몇 년째 사진으로만 딸이 커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지요. 인드라는 큰형의 죽음을 한국에서 돌아와 했고, 작은형이 한국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아픔도 있었지요. 큰형의 제사와 49재를 이국인들도 애도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 다. 그저 같이 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도 한국에서 같이 일하는 네팔 친구들과 일요일마다 만나서 소식도 나누고, 네팔 음식도 해먹고, 야외로 나가 노래와 춤을 출 때는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던 두 사람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폐암으로 투병생활을 했던 선재이 구름의 병환비 마련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다 나이는 몇 살 많지만, 그래도 허물없는 친구로 서로를 바라보며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네요.

네팔에서 한국에 와서 힘든 노동을 하며 지낸 시간도 벌써 12년을 맞이하고 있으니, 인드라와 빔의 청춘은 바로 한국 생활이 전부겠네요. 20대 초반의 유희기가 이제는 어느덧 30대 중반의 여유로움으로 바뀌었으니까요.

1995년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상담을 할 때, 너무나 서툰 저를 두 사람은 참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었지요. 네팔 불자모임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임과 행사를 같이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한국에 와서 처음 배운 단어가 육이었다는 얘기를,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 한국 말을 못해 물건 사기가 겁나 한 달간 빵만 먹었다는 얘기를 이제는 웃으면서 하지만,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무척이나 당혹스러웠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번도 고국에 가보지 못했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지요. 빔은 네팔의 부인이 어여쁜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기만 했을 뿐 몇 년째 사진으로만 딸이 커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지요. 인드라는 큰형의 죽음을 한국에서 돌아와 했고, 작은형이 한국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아픔도 있었지요. 큰형의 제사와 49재를 이국인들도 애도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 다. 그저 같이 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도 한국에서 같이 일하는 네팔 친구들과 일요일마다 만나서 소식도 나누고, 네팔 음식도 해먹고, 야외로 나가 노래와 춤을 출 때는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던 두 사람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급여체계 들쭉날쭉·신분 보장 안돼

대부분 사찰, 중앙기관의 절반에도 못미쳐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기본안전장치도 없어

사찰투명운영·보수체계 표준화를

바뀐다. 업무 지속성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직업인으로서 고용 업무에 대한 보람과 긍지 따위는 상상할 수도 없다.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관련 인사규정조차 없다. 있다하더라도 노동자로서 신분보장 같은 것을 요구할 겨를도 당장 그만 두라는 식의 말만 돌아온다"고 털어놓았다.

이러다보니 재가 종무원의 근무 연수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장기 근속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전남 지역 한 교구본사의 경우, 40여명의 종무원 가운데 1~2년 근무자가 절반에 가깝다. 올해 대학을 졸

서울 조계사는 지난 1999년에 국민연금, 의료(직장), 고용, 산재 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전체 종무원 26명을 일반 회사와 같이 직급과 직책을 부여하고, 급여도 중앙종무기관의 수준으로 인상했다. 조계사의 이 같은 변화는 사찰재정 운영, 신도조직관리 등 제반 업무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종무원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기 때문이다.

대구 동화사도 마찬가지다. 2001년 초에 고용·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지난해 하반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지전류·지자기의 유헤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어깨결림, 우울증, 약용,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 등이 발생합니다. 수혈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헤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사무실·조상묘소**의 수맥·지자기·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영력과 음력을 원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떼기 드립니다.
- 유헤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우리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수신토종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54-3733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덩이와 비닐민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①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참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내어 깨끗이 씻고 해동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문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한다.

②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향이러에 넣고 쪄져 9기마니를 담은 뒤 황기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향이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한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 걸린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신마를 토종 (민속농원)